

▶1면에서 이어짐

이번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지난달 22일 제5차 대평의에서 ‘대평의 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일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수의회는 지난 24일 소식을 통해 “4월 19일(제4차), 4월 22일(제5차) 열린 대평의에서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쳐 ‘대평의 규정안’이 도출됐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54% 가량으로 합의했던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이번 대평의 규정안에선 75%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범대위가 합의했던 투표반영 비율이 크게 뒤집히면서 ‘구성원들이 이미 민주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교수의회가 독선적으로 뒤집었다’는 구성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범대위는 지난해 ‘총장후보추천→총장후보압축→법인이사회최종선임’이라는 총장 선출 3단계 구조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범대위는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의 구성원 투표 시행과 아울러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로 정했다. 또한 법인은 지난 3월 초 규정 초안을 통해 교수15: 직원5: 학생5: 동문5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제시했다.

법인이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늘린 가운데, 대평의 규정안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은 아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 자리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 원장은 지난 8일 “대평의나 교수의회로부터 ‘대평의 규정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교수의 회 강재식 의장 또한 “현재까지 구성원 간

논의는 예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총동문회는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변경에 관한 투표 이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수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이미 3년 전 김홍두 의장 시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비율을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와 법인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임 총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각 구성원 단체가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다.

만일 오는 20일까지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번 학기 내 총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방향 중엔 총장 선출제 논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던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총장 선출제 입안과 관련한 논란은 다음 학기까지 장기화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총장 선출제 입안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 법인의 정기 이사회는 오는 8월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소통과 논의 마련이 급선무라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경(국어국문학 2019) 씨는 “학교는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형(철학 2016) 씨는 “구성원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구성원 합의없는 총장후보선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제기간 주류 구입, 생협 통해 해결하세요

〈생활협동조합〉

배지현 기자 fleitjsdp@khu.ac.kr

【서울】 축제기간 중 교내 주류 구입이 2019년 봄 대동제 동안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부스를 통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생협이 총학생회(총학)와 협의를 통해 주류 판매 부스를 축제 기간 청운관 앞과 혈떡고개 위 중앙계시관 앞 두 곳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부 2016) 회장은 “축제 기간 학우분들의 원활한 주점 이용을 위해 생협 측과 논의했다”며 “생협에서 운영하는 주류 판매 부스가 교내 두 곳에 설치돼 이곳에서 주류를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내 대동제 기간 교내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총학, 축제 주류 판매금지 수용, 단대 학생회는 ‘울상’/대학주보 1634호 1면, 2018.05.14.) 주세법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로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류 판매업면허가 없으니 매 축제 때 진행되던 각 단과대 차원의 주점 내의 주류 판매가 일체 중단됐다.



(사진=대학주보 DB)

교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기존과 달라진 주점 운영 방식으로 인해 주점 기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점을 이용하는 학생들 또한 외부에서 주류를 사서 반입해야 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손효지(외식경영학 2017) 씨는 “지난해 축제 때는 교내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다보니 손님들이 주류를 외부에서 직접 사오는 것에 많은 불편을 토로했다”며 “2017년에 비해 주점 이용 손님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총학 김 회장은 “생협 부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교내 주류 구입이 가능해져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70주년 축제인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이번

축제를 좀 더 즐겁게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 주류 판매로 발생한 수익 일부는 주점을 진행한 단위에 지원금 형식으로 되돌려질 예정이다.

생협 부스를 통한 교내 주류 판매 소식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민주(정치외교학 2018) 씨는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축제기간 동안 설치될 생협 주류 판매 부스 덕분에 주점 기획의 많은 부분이 수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화(행정학 2018) 씨는 “접근성이 좋은 청운관, 혈떡고개 위에 생협 부스가 설치되면 주점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통과 화합의 장 이끄는 ‘경희 70 이니셔티브’

김재운 기자 kjy0808@khu.ac.kr

2019년 한 해 실시될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에 지난 3월 모집된 ‘경희 70 이니셔티브’ 학생 그룹이 봉사와 홍보 활동으로 참여한다.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그룹은 귀빈 접대, 행사 현장 안내 등 봉사 활동과 조별·개인별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기념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 공감대 형성에 방향이 맞춰졌다. 개교기념일이 속한 1학기에는 개교 70주년 문화공연 및 감사의 밤, 개교 70주년 기념 해외동문 초청 만찬,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2학기에는 PeaceBAR Festival, Magnolia 2019 등 연간 행사를 개교 70주년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그룹은 이러한 행사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 전반적인 진행을 돕는다. 귀



(사진=경희대 70이셔티브팀)

빈 접대, 일반 안내, 안전 통제 등 봉사 활동이 주요 활동 계획이다.

또한 9개의 조로 나누어 각 조마다 개교 70주년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인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참여한다. 홍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기념사업을 알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

는 취지다.

학생 그룹 단장 이하은(기약과 2016) 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연구력강화워크숍: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 총괄 편집장’ 초청 강연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는 “연구력 강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 총괄 편집장’ 초청 강연을 2019. 5. 27(월) 오후 3시에 개최합니다.

학술지 논문 투고의 요령, 주의 사항, Peer Review 절차 등과 관련된 전반 내용을 설명하고, 강연에 참가한 경희대 연구자들의 질의 응답 및 네트워크 세션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적 출판사에서 수년간 재직한 출판 총괄 편집장의 강연을 통해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받는 유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5.27.(월) 오후 3~5시

장소 : 법학관 3층 대회의실(301호)

연사 : Chris Harrison, Publishing Development Director 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연 구성

3~4시	주제 강연 (Publishing in top international journals, Maximizing the impact of your research) - Introduction to writing and publishing your research work - Publishing in top international journals - Tips on submitting your articles to journals - Navigating the peer review process - Maximizing the impact of your research - Open access publishing
4~5시	QnA, Open Discussion, Faculty & Researcher Network

* 주제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내용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링크 : <http://khu-kr.libcal.com/calendar/seoul/CUP>

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02-961-9285/khsd3016@khu.ac.kr